"내란 세력 야욕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야"

민주당 광주시당 대선 선대위 출범

박지원·정청래 의원 등 300명 참석
상임선대위원장에 지선스님 등 합류
양부남 "광주가 정의 바로 세워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박지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선스님 등이 8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사무실에서 제21대 대선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손팻말을 들고 승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오는 12일부터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광주 서구 서창동에 마련된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부남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불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지선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지선스님을 비롯해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의원 등 12명이 합류했다.

또 상임고문단으로는 박광태·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박혜자·송갑석·이병훈·이형석 민주당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참석자들은 내란 종식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제4기 민주정부 창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내란 세력의 아욕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과 내란의 연장, 통합 혹은 분열의 시대의 기로에 있다.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승리 구호를 외치며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달성 목표가 적힌 '90% 압도적 지지' 현수막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계엄·쿠데타를 극복한 배경에는 5·18정신이 있었다"며 "또다시 이 나라가 김건희 후속 국가 시즌 2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두고 "다수의 민심을 대변한 죄밖에 없는 사람을 벼랑으로 모는 이 현실에서 광주가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사법리스크 벗은 이재명, 중도 확장 '박차'

경제5단체장 간담회서 "친기업"
경제행보 올인… 대세론 굳히기
오는 12일 광화문서 첫 공식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8일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며 중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대선일까지는 일단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벗어난 만큼, 경제와 민생 이슈의 고삐를 세게 잡아 쥐고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부각, 중도 확장과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의 공판 기일 연기 결정 이튿날인 이날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웠다.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년연장·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홍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도 가졌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들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듣고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12일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유세를 시작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 시장, 국힘 탈당 김상욱에 "5·18 행사 초대"

SNS에 "깊은 고뇌·힘든 결단 응원"
김 "이재명 등 만나 고민 나누고파"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강 시장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며 "깊은 고뇌와 힘든 결단을 응원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이어 "김 의원을 5·18 민주주의 대축제에 초대한다"며 "초대장을 보냈으니, 현재 형이 된 '5·18'에, 보통명사인 '광주'로 꼭 오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 시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전원에게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 초대장을 보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정상아 기자